

‘3년 연속 인구 증가’ 광양시, ‘인구수 역주행’ 속도

지역 정착 유도 ‘선순환 구조’ 5개 분야 총 50개 사업 추진 청년주도형 교류 활성화 지원 역량 강화·인재양성 체계 구축

출산율 증가와 청년인구 유입에 힘입어 3년 연속 인구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전라남도 광양시가 ‘인구수 역주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취업 적령기(27세~34세) 청년 유입이 64%에 달했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는 청년인구 비율이 34.4%를 기록하며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이와 같은 광양시의 청년인구 유입 증가의 비결은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선순

환 구조’가 꼽히고 있다. 특히 철강 및 이차전지 등 협약기업 맞춤형 청년취업 아카데미 운영으로 취업률을 높이고, 청년 주택 대출이자와 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을 통해 주거 부담을 줄인 점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광양시는 올해도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관련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본예산 대비 9억 3000만원이 증액된 총 200억7840만원을 확보했으며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활동과 자립,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이를 투입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2025년 광양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참여·권리,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교육 5개 분야에서 총 50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5개 분야 산업은 △청년 행정인턴 운영,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등 참여·권리 분야 9개 사업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분야 15개 사업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주거 분야 7개 사업 △미혼남녀 만남 행사, 문화복지카드 지원 등 복지·문화 분야 9개 사업 △백운장학생 장학금 지원, 청년농업인대학 운영 등 교육 분야 10개 사업으로, 분야별로 정책을 구체화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청년층을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시는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관련 여건을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하고 있으며, ‘2025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추진 타당성, 지자체의 역량과 의지, 발전 가능성 등 지정 평가 기준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 청년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청년친화적 사업을 발굴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거쳐 이를 신규 청년정책으로 연계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청년 정착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광양읍 구도심 일원에 창업실험실과 교육·거주 기능을 갖춘 공간을 조성하는 ‘고향올래 청년복합공간 조성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이를 인근 청춘스케치마을과 연계해 청년 생활 인구 유입 촉진과 지역 활력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해 광양시는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청년농업인대학 운영 등을 추진, 농업 분야 핵심인력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고 광양클라

우드데이터센터와 연계한 중소기업 기술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지원사업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 융합인재 양성에 지속하고 있다.

순천대학교 첨단소재 광양 캠퍼스 개소를 계기로 첨단소재 분야 중심의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산학연계 교육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남형 청년인재’ 양성 기반도 확충하고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복지를 아우르는 3각 체제를 구축해 젊은이들이 광양에 오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모든 청년이 꿈꾸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청년친화도시 광양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광양=안영준 기자

‘공무원 사칭’ 노쇼 시도 확인... 주의 당부

도매업체에 선금 입금·물품 요구 피해 없었으나 명함 위조 등 정교

전국적으로 공무원을 사칭한 식당 예약 선결제 사기, 물품 납품 사기 등 유사 피해 사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 광양시에서도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확인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0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사칭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도매업체에 선금을 요구하고, 고가의 물품을 주문한 뒤 수령하지 않고 사라지는 이른바 ‘노쇼(No-show) 사기’ 시도가 발생했다.

사기 행각은 ‘광양시청 총무과 공무원’을 사칭한 인물이 도매업체에 물건 대리 구매를 요청하며 선금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어 같은 부서의 또 다른 직원을 사칭해 가짜 명함을 제시하며 신뢰를 얻은 뒤, 자동문 수리나 가구 등

고가의 물품을 주문하고 잠적하는 수법도 함께 시도됐다.

다행히 해당 업체가 수상함을 느끼고 광양시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서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허위로 작성된 사기임이 밝혀졌고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범행 과정에서 실제 부서와 공무원의 이름을 도용하고, 조작된 명함 이미지를 문자로 전송해 피해자의 신뢰를 유도하는 등 치밀한 수법이 사용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양시는 사칭 홈페이지와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환기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등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112(경찰) 또는 1332(금융감독원)로 신고해야 한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청년꿈터, 현직 AI 개발자 ‘AI 활용 특강

전라남도 광양시는 오는 20일 광양청년꿈터 다목적실에서 청년 대상 역량 강화 특강 ‘AI는 이렇게 써야 재밌! - 현직 대기업 개발자의 실제 활용법’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올해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청년 역량 강화 특강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청년들이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자신만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AI 활용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기획됐다.

수도작 드론 방제·비료 살포 지원... 8500만원 투입

전라남도 광양시는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 및 비료 살포에 대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수도작 드론 방제 및 비료 살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드론 방제를 통해 병해충 방제의 효율성과 정밀도를 높이고,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사업량은 총 900ha이며 사업비는

특강 연사는 카카오에 재직 중인 현직 AI 개발자로, 인공지능 기술을 실생활과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본인의 실제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강의 내용은 인공지능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실전까지 폭넓게 구성됐으며, 18세부터 45세까지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15일까지 광양청년꿈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총 8500만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다.

드론 방제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0일까지 관내 항공방제업으로 등록된 지역농협 또는 방제업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제업체 명단은 각 읍면동사무소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지난 7일 전남도청 앞 남양 중앙공원에서 열린 ‘2025 유기농데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장터’의 광양시 판매 부스에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광양시 제공

유기농데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장터 성황

전라남도 광양시는 지난 7일 전남도청 앞 남양 중앙공원에서 열린 ‘2025 유기농데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장터’에 참가해 시의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했다고 10일 밝혔다.

6월2일은 친환경농업단체에서 지정한 ‘유기농데이’로, 올해는 ‘지구를 위한 순

수한 선택, 2025 유기농데이’를 슬로건으로 한 제3회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교류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광양시는 제철을 맞은 친환경 매실, 양배추, 적채, 브로콜리, 샐러리 등 신선농산물 15종과 최근 유기농명인으로 선정

된 이레목장 권영근 대표의 산양유와 요거트를 판매했다. 참여한 시군 중 가장 많은 품목을 선보인 광양시는 전 품목을 완판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 미래세대에게 친환경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유기농 골든벨 퀴즈대회’, ‘청소년 춤 경연대회’, ‘유기농 먹거리 글짓기 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가족 단위 관람객의 호응을 얻었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읍 동천변에 ‘2호 해바라기 정원’ 조성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은 지난 9일 18개 사회·봉사단체와 함께 광양읍 동천변 일원에 2호 해바라기 정원을 조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해바라기 정원은 지난 3월 서천변에 조성된 1호 해바라기 정원에 이은 두 번째 조성 사례로, 광양읍 동부 관문인 경찰서 뒤 삼각지 일원에 해바라기 파종을 통해 마련됐다.



해바라기의 꽃말처럼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광양읍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 이번 행사에는 읍사무소 직원들을 비롯해 사회·봉사단체 회원 200여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봉사단체 회원은 “1호 정원에 이어 직접 2호 정원을 조성하는 데 참여해 매우 보람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뜻깊은 활동에 계속 함께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권희상 광양읍장은 “사회·봉사단체의 헌신적인 참여로 조성된 해바라기 정원이 8월께 만개해 광양읍을 찾는 시민들에게 사랑과 희망, 행운, 풍요로움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읍 서천변에는 현재 버들마편초, 꽃양귀비, 안개초, 철쭉, 꽃잔디 등 다양한 꽃들이 개화하고 있다. 이달 말부터는 해바라기도 피어나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할 전망이다.

광양=안영준 기자